

지역 소식통

정읍농기센터, 미래농업 공개강좌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4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와 미래농업'을 주제로 공개강좌를 가졌다. 강좌에는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와 품목별 연구회, 귀농인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좌에서는 카이스트 이경상 교수가 초빙강사로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 농업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미래 농업에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며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도 가졌다.

강좌에 참석한 김생기 시장은 "자원이 부족하고 경지 면적이 협소한 우리의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업R&D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기획전시전 마련

정읍시립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기획전시전을 마련했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명은 '의식(衣), 식(食), 주(住)'라는 큰 주제로 진행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예 작품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금속과 나무, 섬유, 흙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공예 작품들을 만나보고 간단한 체험활동도 진행한다.

한편 전시기간에는 일반시민들을 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립미술관 12층 라운지에서 '실과 나무 공방'도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내부고객 인권보호 앞장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에서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만족도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 내부 불만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프로그램을 마련, 연중 직원들의 고민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박서장은 직원들과 티 타임식 직접 커피를 내려 제공하고, 지, 파출소를 방문할 때 일방적 지시보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아침 각 과장들을 지, 파출소에 진출시켜 신임 순경을 포함하여 지역경찰의 여론을 청취 발굴,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청문감사실도 현장 중심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법을 모색 제시하는 등 말 그대로 내부고객 인권보호에 앞장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변산반도 불법행위 집중단속

오는 22일부터 16일간... 바닷가 취사·야영·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재)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공원 내 내변산 봉래구곡 등에 대해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 했다.

이를 위해 공원사무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6일 간, 계곡 내 목욕, 바닷가 취사·야영, 불법주차,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 흡연행

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공원사무소는 최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피서객들이 출입이 금지된 계곡을 무단출입하여 목욕 등을 함으로써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론 과도한 노출로 탐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사무소는 매년 여름

철 지속으로 반복 되는 바닷가 취사, 불법주차, 해양생물 채취 등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은 피서객이 일시에 집중됨에 따라 자연 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의 공원관리에 애로가 많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선운산유스호스텔 별관 리모델링 완료

16억원 투입... 개별난방·벽체 교체·무선인터넷 설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직영하는 선운산유스호스텔 별관(가족실)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17일 군에 따르면 선운산유스호스텔 본관과 별관(가족실)을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 단장했고 객실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오래된 창호와 벽체 교체, 객실 내 화장실 수리와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난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새롭게 단장했다.

또 객실마다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젊은 세대를 배려했으며 정보 활용도 높여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쉴 수 있도록 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총 53개(본관 32개, 별관(가족실) 21개) 객실에 31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대규모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청소년 캠프와 대학생 MT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내년도는 기능보강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본관 창호, 식당, 공동화장실, 공동샤워실 등 리모델링을 진행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꾸며 이곳을 찾는 청소년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직영하는 선운산유스호스텔 별관(가족실)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정읍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정읍시는 17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정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곤 부장이 강사로 초빙돼 각종 산업재해 예방 요령 등을 안내했다.

이날 김부장은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와 작업 미숙련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계층임을 감안, 눈높이에 맞게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등 알기 쉬운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김생기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공공근로를 비롯 자활근로와 노인 일자리사업 등 31개



정읍시는 17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에 공적자금 약110억원을 투입하여 모두 3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국정1호 과제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종합대상 오현숙씨·판소리부 남서원씨 등 수상



(사)한국예술연구진흥원(이사장 서양수)과 (사)한국예술연구진흥원 고창군지부(지부장 최희호)가 공동주관하고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후원한 '제8회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5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개최됐다.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을 통해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위원장, 서양수 한국예술연구진흥원 이사장, 최홍호 한국예술연구진흥원 고창군지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는 일반부, 단체부로 나눠 판소리, 무용, 민요, 고법·기악·타악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국악인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열띤 경

쟁을 벌였다. 대회결과 ▲종합대상 오현숙(대전·사진) ▲판소리부 남서원(광주) ▲무용부 박정연(경기) ▲민요부 권경숙(전주), 오경선(광주) ▲고법·기악·타악부 이수민(정읍)씨가 각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은 동리 신재효 선생,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 국창으로 불린 만정 김소희 선생 등 훌륭한 국악 명인·명창을 배출하고 전통문화예술 자원이 매우 풍부한 예향의 고장"이라며 "전통음악의 중흥지인 고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재능 있고 훌륭한 국악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행사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연구진흥원 서양수 이사장은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를 통해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과 영예로운 등용의 장을 마련해 국악의 보존과 체계적인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민주평통 이영식 회장, 장학금 1000만원 쾌척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 이영식 협의회장(사진)이 17일 부안군 나누미근로농장 학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영식 협의회장은 취임 이후 1,000만 원씩 4년에 걸쳐 나누미근로농장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회장 취임 전인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총 1억 원을 기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 취임 후부터 관내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백미 10kg 500포,

연탄(4,000장)등을 지원하고 관내 이 탈주민에게도 비정기적으로 지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쌍용레미콘 등 3개 기업을 경영하면서 부안군민 100여 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얼마 전 강산명주에서는 그리주(중유수)를 출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평생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이영식 협의회장은 바람처럼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해 군민과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일상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급처럼 정진해 나아간다면 통일도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